



[산업]
현대모비스
3D게임 기술로
자율주행 정확도 ↑
05



코스피 2318.25 (0.00)	→	코스닥 834.91 (0.00)
금리 (국고채 3년) 1.96 (+0.04)	↑	환율 (원·달러) 1116.60 (-5.80) (14일)

이재용·최태원·구광모·현정은 회장 등 평양 간다

재계 빅4 동행 “경협 실질성과 도출”

평양 정상회담 D-1
특별수행원 명단 발표

서훈 등 공식수행원 14명
박원순·박성택·박용만 등
각계각층 인사 52명 구성
가수 지코·에일리도 동행

문재인 대통령의 오는 18~20일 ‘평양 정상회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회장 등 4대 그룹 대표가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한다.

정치권에선 이해찬 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정상회담 동행을 수락했다. 남북정상회담에 정당 대표들이 함께 가는 것은 처음이다.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식수행원 14명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인사 52명으로 구성된 특별수행원 명단을 발표했다.

공식수행원으로는 정부를 대표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



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재현 산림청장이, 그리고 청와대에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 김의겸 대변인, 김종천 의견비서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문 대통령을 보좌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추석을 앞두고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 이번 정상회담 공식수행원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접경지역을 대표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순방에 동행한다.

경제계에선 4대 그룹 대표 외에도 이재웅 쏘카 대표,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

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이동걸 산업은행 총재가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007년 등 과거 남북정상회담에서도 4대 기업을 비롯해 경제인이 많이 동행했다. 더 많이 모시고 싶었지만 숫자 제한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자문단 및 학계에선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이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흥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 등 정상회담 원로 자문단도 함께 할 예정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선 김주영·김명환 양대 노총 위원장, 이기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홍길 민화협 상임의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함께 한다.

임종석 실장은 “국민 통합과 종교 교류 차원에서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 원택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이홍정 KNCC 총무, 한은숙 원불교 교정원장 등 대표적인 종교계 인사들도 특별수행원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선 ▲ 나의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 저자인 유홍준 교수 ▲ 2034년 월드컵 남북 공동 개최를 제안한 차범근 감독 ▲ 1991년 지바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북측 리분희 선수와 남북탁구 단일팀을 이뤘던 현정화 감독 ▲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주장이었던 박종아 선수 등이 문 대통령과 함께 평양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아울러 가수 지코, 에일리, 작곡가 김형석씨도 이번 수행단에 참가해 평양에서 ‘평화의 화음’을 선사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공식수행원으로는 정부를 대표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를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이를 앞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평화를!’이라고 적힌 글귀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협력사·농촌마을과 함께 나는 추석

삼성, 더불어 사는 ‘상생경영’ 강화

1조 규모 물품대금 조기 지급 자매마을 직거래 장터 운영

삼성이 추석을 맞아 협력사 물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농촌마을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며 사회와 더불어 사는 상생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삼성은 추석을 맞아 약 1조원 규모의 협력사 물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당초 지급일보다 약 1주일 정도 일찍 지급하며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물산 등 10개 계열사가 참여한다.

삼성전자는 2005년부터 국내



13일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열린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에서 임직원들이 삼성전자 자매마을 ‘경남 산청 지리산 대포곶감 마을’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둘러보고 있다.

최초로 협력사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 지급하고 있으며, 2010년부

터는 은행권과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에 시설투자와 R&D 자금 등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작년 6월부터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지원하는 7000억원(전자 5000억원, 디스플레이 2000억 원) 규모의 ‘물대지원펀드’도 운영하고 있다.

삼성은 이와 함께 전국에 있는 각 계열사 지역사업장에서 임직원들이 명절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할 때, 사업장의 자매마을의 농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16개 계열사 29개 사업장이 참여한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는 삼성전자 자매마을, 농촌진흥청 협력마을, 강원도청 정보화마을 농민들과 함께 ‘추석맞이 자매마을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

이번 직거래 장터에서는 삼성전자가 결연을 맺은 경기도 포천 비둘기농 마을에서 생산한 간장·된장·고추장과 농업진흥청과 협력을 맺은 경기도 이천 길경농원에서 생산한 도라지분말과 조청, 강원도청 정보화마을인 영월 예미 포도마을에서 생산한 포도와 포도즙 등 전국 32개 농촌마을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144종을 선보였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현대자동차 ‘정의선 시대’ 개막

미래 성장동력 집중 현장 경영 드라이브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정몽구 그룹 회장의 다음 자리로 ‘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직에 오르면서 현대차그룹 경영 전면에 나선다. 빠르게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부회장은 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으로 임명하고 그룹 경영과 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본격적으로 3세 경영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현대차그룹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과제는 ‘지배구조 개편’
정 부회장이 그룹 수석부회장에 올랐지만 안정적 경영 승계를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편을 해결해야 한다.

상반기만 다섯 차례 中 방문
실적악화 돌파위해 전면나서

자율주행·수소·전기차 등
경쟁력 강화 위해 투자 주도

지난 5월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를 정점에 두면서 정의선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추진했으나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의 공격과 의결권 자문사들의 반대 의견이 있따르자 스스로 주주총회를 취소했다.

현대차그룹 측은 “시장과 주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지만 아직 시기나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엘리엇의 공격으로 작업이 중단된 이후 한동안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연말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오른쪽)과 자오용 딥글린트 CEO가 지난 6월 13일 중국 상하이 신국제엑스포센터에서 열린 ‘CES 아시아 2018’에서 현대차와 딥글린트간의 기술 협력 파트너십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